

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보도자료

기 재 일	2010. 6. 16.(수) 조간부터
페이지수	표지포함 총 3매
자료문의	자본시장연구원
담당자	박철호 연구위원
연락처	02)3771-0646
E-mail	cpark@kcmi.re.kr

※ 통신은 6월 15일(화) 12시, 일간지는 6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.

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

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의 역할

주요내용

- 자본시장연구원(원장 김형태)은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으로 6월 15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(여의도)에서 **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의 역할**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
- 발표1에서 신현송 청와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은 국내 자본유출입 현황과 단기성 외화부채 과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최근 정부의 외화유출입 및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배경과 전망을 설명
- 발표2에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장 경험을 소개하고, 특징으로 원화환율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변동성 확대 그리고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확대 문제를 지적하였음
- 발표3에서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위험 헤지거래를 위한 상품의 특징과 이용 현황을 소개하고 선물환거래의 대안으로서 통화선물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

※ 별첨 : 발표2 및 발표3 [요약]. 끝.

[요약] 한국 외환시장의 평가와 발전방향

발표자 : 이인형 (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)

- ☐ 발표2에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함
- ☐ 주요 내용은 한국 외환시장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장 경험을 소개하고, 특징으로 원화환율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변동성 확대 그리고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확대 문제를 지적하였음
- ☐ 이러한 경험의 배경 원인으로는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 매매 활동에 따른 외화부채의 누적, 특히 단기외채의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소개함
- ☐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이 국제자금시장에서의 도매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국제자금시장의 신용 및 유동성 경색이 직접적으로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게 됨
- ☐ 또한 국내 원/달러 시장의 미시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과도한 호가갭이 발생하고 이는 위기 시 급격한 환율 움직임을 원인이 됨을 주장함
- ☐ 정책적 제안으로는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감시 체계의 강화 및 세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직접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보다는 은행권의 외환건전성 규제의 강화를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함
- ☐ 그러나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외환 건전성 규제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간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을 주장함

[요약] 통화선물을 활용한 기업의 환헤지 활성화 방안

발표자 : 박철호 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

- 발표3에서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“통화선물을 활용한 기업의 환헤지 활성화 방안”을 주제로 발표함
- 주요 내용으로는 환위험 헤지거래를 위한 상품의 특징과 이용 현황을 소개하고 선물환거래의 대안으로서 통화선물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
- 국내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선물환, 환변동보험, 장외통화옵션(KIKO)을 주로 활용해왔으나 거래조건이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인 통화선물의 사용은 저조
-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미국달러선물거래에 대해 도입한 EFP(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)거래제도는 기존 통화선물거래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서, 협의대량거래처럼 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
-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는 통화선물거래는 개인에서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하고 EFP거래를 통한 수출입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협의거래는 외화차입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
- 통화선물 EFP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매칭(matching)시킬 수 있도록 많은 수출입기업들로 구성된 풀(pool)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,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(예, 증거금의 저리 대출)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그 밖의 EFP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(1) 지나치게 경직적인 현·선물의 가격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으며, (2) 현재 미결제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EFP거래를 신규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고, (3) 실물인수도 절차를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